

프로폴리스의 위력

-지난호 이어서-

2. 프로폴리스와 부작용

프로폴리스에 관한 여러 책에서는 “프로폴리스에는 부작용이 없다”고 했다. “프로폴리스를 10년간 복용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프로폴리스에는 부작용이 없다”고 단정을 내린 책도 있었다. 이것은 복용연수(年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용량이 중요하다.

필자는 액상일 때 1회에 5~8방울(1cc는 16방울) 하루 2~3회 사용하도록 권한다. 이 용량은 치료를 위한 용량이다.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양을 높인다. 2~3개월이면 낫는다. 특별한 병이 아니면 4개월이면 거의 해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용량을 높여 오랫동안 사용할 필요가 없다. 치료가 아닌 예방으로 사용할 때는 치료량의 3분의 1 정도면 된다. 이 정도의 양이면 평생 복용해도 괜찮은 것이 프로폴리스다.

꿀벌이 출방할 때마다 얇은 막으로 코팅을 한다. 벌집(소비)은 4년 이상 사용하면 벌집 내부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꿀벌의 몸체도 작아진다. 노련한 양봉가들은 벌집이 3년 이상이면 고소비(오래된 벌집)로 취급하고 사용하지 않고 버린다. 고소비 일수록 프로폴리스의 함량이 많다. 오래된 집에서 출방했다해서 불구가 되는 것은 없다. 소량을 사용하면 평생 장복해도 괜찮은 것이 프로폴리스이지만, 유아들에게까지 먹일 필요는 없다.

프로폴리스에는 바이오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많기 때문에 강한 혈액순환을 시키는 작용이 있다. 정상적인 생리가 있는 사람이 프로폴리스를 먹게 되면 생리기간에는 양이 많아진다. 그러한 작용이 있는 프로폴리스를 코피를 잘 흘리는 사람에게 먹이면 어떻게 될 것인가? 과민성 대장염으로 장출혈이 있는 사람에게 프로폴리스를 먹일 때는 주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궤양일 때는 출혈이 되다가 멎는 수도 많다.

수술환자에게는 봉합 부위에서 지혈이 잘되면 상처가 잘 낫지만, 출혈이 되면 도리어 화농되기 쉽다.

사람이면 누구나 잘되는 것을 좋아한다. 잘되는 것도 적당히 잘될 때는 무리가 없지만, 너무 잘 되면 때로는 화를 자초할 수 있다. 혈액순환도 적당히 잘 되면 좋아도, 너무 잘 되면 부분적인 통증으로 머리

가 아플 수도 있다. 한약을 복용하면서 프로폴리스를 같이 복용할 때는 한약을 줄이든지 아니면 프로폴리스를 죽여야 한다.

한약제에는 혈액순환제가 첨가되어 있다. 한약도 열심히 먹고, 프로폴리스도 열심히 먹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것은 혈액순환이 너무 촉진되어서 오는 현상이므로 모두 끊으면 금방 없어진다.

우리 몸에서 모세혈관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부위가 두뇌다. 그리고 눈 안구에 있는 망막혈관이다. 고혈압 있는 사람이 화장실에서 변을 볼 때 아랫 배에 힘만 주어도 뇌출혈로 쓰러지는 경우가 있고, 눈은 약간의 타박상을 입어도 금방 충혈이 된다.

프로폴리스가 망막혈관 확충으로 눈에 부작용은 오지 않을까 하고 살폈지만, 그런 사람은 보지 못했다. 그러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프로폴리스는 혈액의 점액도를 낮추어 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중풍같은 질병은 예방할 수 있다.

무슨 물질이든지 효력이 뛰어나거나 강한 작용이 있으면 부작용은 필히 따른다. 관절에 통증을 느끼는 사람이 부신피질 호르몬제인 텍사코티실 2알만 먹으면 통증이 완화되거나 몇 시간은 멎는다. 그러나 이 약을 계속 먹으면 골다공증을 유발시키고, 내장 기관에도 여러가지 해를 주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의사나 약사도 신중을 기한다.

몸을 덥게 하는 한약의 부자도 단시일에 사용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신경마비, 호흡곤란, 경련 등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시킨다. 부자에는 강한 알칼로이드(0.32%) 성분과 독성이 강한 아코니틴(Aconetin)이 0.1%가 함유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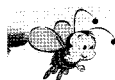
프로폴리스는 효과에 비하여 부작용이 적다는 것이지 부작용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먹을 때 용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용법은 잘 지켜야 한다.

3. 아르헨티나의 프로폴리스 사건을 접하고

아르헨티나 보건 비상사태 선포, 프로폴리스 복용 후 22명 사망.

이 뉴스는 1984년 아르헨티나에 이민간 전 한국 양봉협회 경북지부장이었던 김영식 선생이 양봉계에 긴급히 알려왔던 사실이다. 필자 나름대로 판단한 것을 1992년 양봉계 11월호에 투고하였던 것을 그대로 옮긴 글이다.

한국의 정반대쪽에 있는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났



던 충격적인 대사건을 경북지부장으로 오랫동안 수고하셨던 김영식 선생께서 긴급히 알려준 데 대하여 먼저 김선생께 감사를 드린다.

파괴는 건설의 시발이라 해서 전쟁에서 오는 파괴를 오히려 미화하여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약이나 식품으로 인해 인체에 해가 있었다면 이는 물질의 피해와는 다르며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

1) 중금속은 체내에 축적된다.

중금속 오염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1946년 일본에서 발생하였던 『이따이 이따이 병』을 들게 된다. 이 병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증세가 관절의 마비, 청력, 시력의 감퇴이지만, 먼저 골절을 일으키면서 통증이 온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하여 아프다고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이따이 이따이(일본어로 아프다는 뜻)병으로 이름이 지어졌다. 500여명이 이 병에 걸렸는데 원인 규명이 되기까지는 22년이 경과한 1968년에 밝혀졌다.

병의 원인은 상류에 있었던 제련공장에서 흘러나온 카드뮴(Cd)이 토양에 스며들었고, 거기에서 생산된 쌀과 채소를 먹었던 것이 몸에서 배설되지 않고 축적되면서 발병하게 되었다. 이것은 중금속의 독성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경종이 되었다.

약으로 인한 사건은 제 2차 대전후 독일에서 일어났던 『카리도마이드』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약은 신경안정제로 사용하였던 약이다.

특히 임신부들이 임신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약을 많이 복용하였는데 이 약을 먹고 출산시킨 자녀들 가운데는 한쪽 다리나 팔이 없는 기형아로 태어났다.

지금은 잠잠해졌지만, 몇달 전까지만 하여도 떠들썩했던 은행잎으로 만든 의약품 사건은 우리들 기억에 너무나도 생생하다. 혈액순환제인 이 약을 먹고 부작용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말썽이 난 것은 약품 속에 메틸알콜(Methyl alcohol) 성분이 없어야 하는데 그 성분이 그 약 속에 있었던 것이 원인의 발단이였다. 문제의 약은 자체적인 기술로 개발시켰고, 은행잎을 처음 개발시킨 뒤 서독에까지 수출되었다. 한달 매출액이 20억이나 되었던 인기 상품 중의 하나였던 약이 하루 아침에 문제의 약이 되었던 것이다.

필자의 생각이지만, 전망있는 제약회사가 독성이 강한 메탄올(메틸알콜)을 사용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메틸알콜은 목재를 건조할 때 1~1.5%에서 얻

어지는 무색의 알콜이지만, 독성이 매우 강하다.

인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5~10cc만 복용해도 시력장애가 일어나고, 심장이 극도로 약화되면서 심장마비를 일으킨다. 이러한 반응은 12~24시간 이내에 사망시킨다. 이런 강한 독성이 있기 때문에 공업용인 부동제(不凍濟), 세정제(洗淨劑) 때로는 연료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인체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메틸알콜과 이름이 비슷하여 때로는 혼동하기 쉬운 에틸알콜(Ethy alcohol)은 전분이 많은 고구마나 사탕수수를 발효시켜 얻어지는 알콜로서 의약품이나 술 만드는 데 사용되는 알콜이다. 술을 만든다해서 주정(酒精) 알콜이라고도 한다.

의약품을 만들 때 에틸알콜을 사용하게 되는 것은 약의 성분을 덜 파손시키고 추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물을 끓여서 얻을 때는 110℃까지 높인다.

이것을 진공에서 끓이면 80℃에서 끓게 되고, 알콜에서는 70℃에서 끓는다. 액화시킨 물질을 액기스로 만들려고 하면 적어도 12시간 이상을 농축시켜야 하지만 알콜을 사용하였을 때는 이 시간보다 많이 단축된다. 이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양질의 성분을 얻으려고 할 때는 알콜을 사용한다. 그래서 원료를 추출할 때는 알콜을 이용하게 된다.

일부 학자들의 이론에 의하면 에틸알콜을 만드는 과정에 극소량이긴 하지만, 자체에서 메틸알콜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감안하여 의약품 생산 때 극소량의 메틸알콜은 허용되어 왔다.

그러나, 소비자 고발측에서는 없어야 할 메틸알콜이 나왔다고 업계와 티격태격하다가 무승부로 끝났지만, 막대한 피해를 본 것은 은행잎으로 『징코민』을 먼저 개발시킨 제약회사였다.

2)우일렌사의 사고

우리 속담에 “재주는 꿈이 하고 돈은 ○○이 번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프로폴리스에도 적용되고 있다. 프로폴리스를 처음 연구한 국가들은 현대 의학을 선호하면서도 의학시설이 다소 뒤떨어졌던 루마니아, 소련, 유고슬라비아 등 동구권의 공산국가들이었다. 여기에서 연구된 자료들이 프랑스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덴마크나 스웨덴으로 흘러 들어가서 상품의 태동이 일기 시작했다. 이것을 재빨리 입수하여 상품화시켜 판매를 촉진시킨 것은 일본이다.

일본은 우리 나라와 같이 많은 원료가 생산되지 못하다보니 착안해 낸 것이 남미로 이민간 교민들이었다. 일본 양봉인으로서 남미로 이민간 사람들



이 많았고, 그들이 봉업계(蜂業界)를 주름잡고 있는 실정이다. 그들과 손을 잡고 “일본 것은 효력이 없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것이 효력이 있다”고 선전해 왔다.

일본은 세계에서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다. 국민소득만이 아니라 독서율이나 지식 수준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국가이다. 그래서 합성의약품에 대한 불신도 강하다. 그들이 선호하는 것은 자연의학과 자연요법이다. 프로폴리스는 벌통 안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화학 의약품에서 올 수 있는 부작용도 없다는 생각이 스며들었고, 거기에는 효력이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급진적으로 판매가 확대되어 로얄제리 다음으로 급성장했다.

남미에서 국가들마다 봉산물을 가공하는 회사들이 수없이 생겨났고, 아르헨티나도 예외가 아니어서 여러 회사들이 생겨났다. 이 가운데 사고를 일으킨 회사가 우일렌 사(社)였다. 이 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자회사 제품을 복용하는 자가 12만명이라고 회사에서 밝혔으니 결코 작은 회사는 아니다.

일본인들이 대대적으로 선전을 해 두었기 때문에 프로폴리스를 만병 통치약으로 인정할 정도로 인식시켜 두었다. 남미에 연고권을 둔 사람이 국내에 들어 올 때는 프로폴리스를 꼭 갖고 와서 팔 정도로 대대적인 홍보가 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5년 후에는 프로폴리스시대가 온다는 것을 믿어도 될 정도로 매년 판매량이 신장되어 왔다.

3) 메틸로 만든 프로폴리스 사건

우일렌사의 프로폴리스를 복용하여 의사가 2명 사망하고, 일반인이 20명 숨졌다는 것은 대사건이고, 국립보건국이 비상이 걸린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대회사에서 주정 알콜은 사용하지 않고, 공업용 알콜인 메틸알콜을 사용했다는 것은 제조체계가 허술하였거나, 재료 구입의 실수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독성이 강한 메틸알콜과 강한 작용이 있는 프로폴리스의 결합은 더욱 강한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 프로폴리스에 항생 성분이 강한 가랑기나(Galangina)나 피노세모리나(Pinoceomorina) 성분만 있어도 치명적인 사건은 다소 면할 수 있었지만, 거기에는 혈액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바이오플라보노이드(Bioflavonoid) 성분이 메틸알콜의 독성을 급격히 확대시켜 줌으로 순간적인 마비나 호흡 곤란에 의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

메틸알콜에 인명 피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

면, 프로폴리스 용해 액에서는 1~2cc에서도 올 수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메틸알콜과 프로폴리스의 결합에 의한 제3의 물질이 발생되어서 온 것이 아니고, 메틸알콜과 프로폴리스의 결합에 의한 강한 독성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

주기(酒氣)가 있는 사람에게는 프로폴리스를 복용시키는 것은 좋지 않고, 목욕탕에 들어갈 사람에게 바로 복용시켜서도 안된다. 심장이 약한 사람에게 복용시켰을 때는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 강심제 주사를 맞은 사람에게 프로폴리스를 복용시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특히 뇌진탕을 일으킨 사람에게 프로폴리스를 복용시키는 것도 극히 삼가야 할 일이다.

이러한 일 때문에 프로폴리스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구더기가 겁이 나서 장을 못 담그는 것과 같은 것이다. 키니네는 인체에 사약과 같은 약이지만, 고열이나 말라리아에 잘 듣기 때문에 특별히 사용하는 약이다. 남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남의 말만 듣고 사용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이 따를 수 있는 일이다. 용량이 적은 것일수록 처음 사용할 때는 적은 양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4) 필자의 실수

프로폴리스에 대한 필자의 실수를 말하려고 한다. 8년 전에 『양봉계』에서 읽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학자가 프로폴리스를 꿀에 타서 복용하면 좋다고 했다. 프로폴리스 액은 꿀보다 비중이 낮기 때문에 로얄제리와 같이 모두 뜬다.

먹는 사람에게 잘 저어서 먹으라고 부탁을 했지만, 먹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며칠 먹을 양을 1회에 다 복용했다. 이것을 먹고 밤새도록 통증을 느꼈고, 방안을 헤맸다고 한다. 그 사람이 몸이 약했거나 심장이 약했다면 큰일날 뻔 한 일이었다. 이 일이 있은 후부터 용량에 특히 주의랄 하게 되었으며, 꿀에 타서 주는 일은 일절 금하고 있다.

줄 때는 그 사람의 약한 부위가 어디인가를 먼저 확인하는데 신경을 쓴다. 프로폴리스를 줄 때는 몸을 도와 줄 수 있는 물질과 병행해서 쓸 때 몸의 피로를 덜어줄 수 있고 프로폴리스에 대한 효과도 높일 수 있다.

필자는 프로폴리스에 의해서 올 수 있는 부작용의 가능성을 몇가지 적어 두고 필자가 장기간 복용하면서 체크한 일이 있다. 여기에서 몇가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밝혀 내었지만, 이것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더욱 부각될까 해서 밝히지 않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